



겨울로 돌아간 한라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진 23일 오후 제주 1100고지에서 바라본 한라산 영실 일대에 상고대가 피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4년 만에 폐장

적자 160억·보조금 127억 낭비... 29일 영업 종료
 사드·코로나19·대기업 면세점 경쟁력 약세 이유
 “지정·성산포항·온라인 면세점 운영 내실화 대응”

공공기관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예상했던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4년 만에 폐점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기대감을 뒤로 한 채 혈세를 낭비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사 면세사업단은 23일 공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내면세점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고상품 판매와 특허 반납 절차 이후 오는 29일자로 운영을 종료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에 주력한다는 입

장이다. 면세점 인력 17명은 공사로 흡수해 재배치하고, 나머지 계약직 9명은 2월중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브랜드 업체 관련 종사자들은 각각 자사로 복귀했다.

앞서 공사는 2015년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듬해인 2016년 2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사업장을 개장했다. 이어 2018년 1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인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제주신화월드로 옮겼다. 그러나 중국발 크루즈 단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결국 시내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공사 측은 시내면세점 폐점 이유에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정부의 한한령 제재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방문 급감과 함께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주 지역 면세점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내·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며 적자폭을 키웠다는 점도 폐점의 원인으로 꼽았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영업기간 4년간 매년 4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자액은 160억원대에 이르며 여기에 제주도 보조금 127억원(2017년 20억, 2018년 30억, 2019년 27억, 2020년 50억)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적자폭은 300억대에 달한다. 대부분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이 사용됐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개점 당시 흑자 경영을 통해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와 투자 확대, 고용 촉진 등의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만성적자로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경영정상화에 실패하면서 이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있는 지정면세점도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적은 330억원대로 감소했고 순이익은 6억원에 불과하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료되면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7월 서귀포시 성산포항 지정면세점 운영 준비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온라인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전용 브랜드 발굴·판매와 함께 업계와의 공동 제휴 마케팅도 활발하게 전개해 시너지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규탁기자 haru@ihalla.com

정부, 코로나19 전담병원 일부 지정해제

확진환자 없는 병원 병상 대상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해 일부를 일반병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3일 확진환자가 없는 12개 병원에 682개 병상을 지정 해제하고, 감염병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병원과 병상 가동률이 저조한 병원을 대상으로 4월 중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병원 55개와 민간병원 22개 등 총 76개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으며 7500여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일부를 일반병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5월 초에는 대구·경북,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및 재가동 계획을 수립해 3차 감축을 추진하고,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북 등 5개 시도는 확진자 추세 등을 살펴본 후 추가적 감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더라도 위기 시에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내 감염병관리기관 3곳에 소 개령을 내려 68실 370병상을 사전 확보했다. 병원별로는 제주대학교병원 27실 101병상, 제주의료원 28실 72병상, 서귀포의료원 13실 48병상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총 13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총 7명이며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현재 치료중인 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의견을 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6385@ihalla.com

재난지원금 지급 건수 2만건 육박

20~22일까지 1만7608세대·61억원 지급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u.go.kr)을 통해 접수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심사한 결과 총 1만7608세대·61억 250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3일 동안 행복드림포털 방문자 수는 31만6233명이었으며, 실제 신청까지 이뤄진 경우는 2만361세대다.

지급 결정된 1만7608세대를 세대별로 보면 1인 가구가 5312세대(30.2%·10억6240만원)로 가장 많고, 4인 이상 가구 5238세대(29.7%·26억1000만원), 2인 가구 3796세대(21.5%·11억3880만원), 3인 가구 3262세대(18.5%·13억48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주요 민원은 ▷방학 중 비근무로 소득이 감소한 교육공무직 ▷건

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 ▷최근 소득 감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특실확인서’ 제출 문제 등이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민원을 심의할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하고, 건강보험특실확인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24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0·5’ 경우에만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현장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710-6231-6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디지털콘텐츠 제작환경 업그레이드 지원

다지털콘텐츠 제작지원
 제주도, 참여기업 모집

제주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공모한 ‘지역 강소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역 스마트콘텐츠

개발환경 조성사업’에 지난 3월 제주에서는 처음 선정된 가운데, 후속 사업으로 ‘2020년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 비해 디지털콘텐츠산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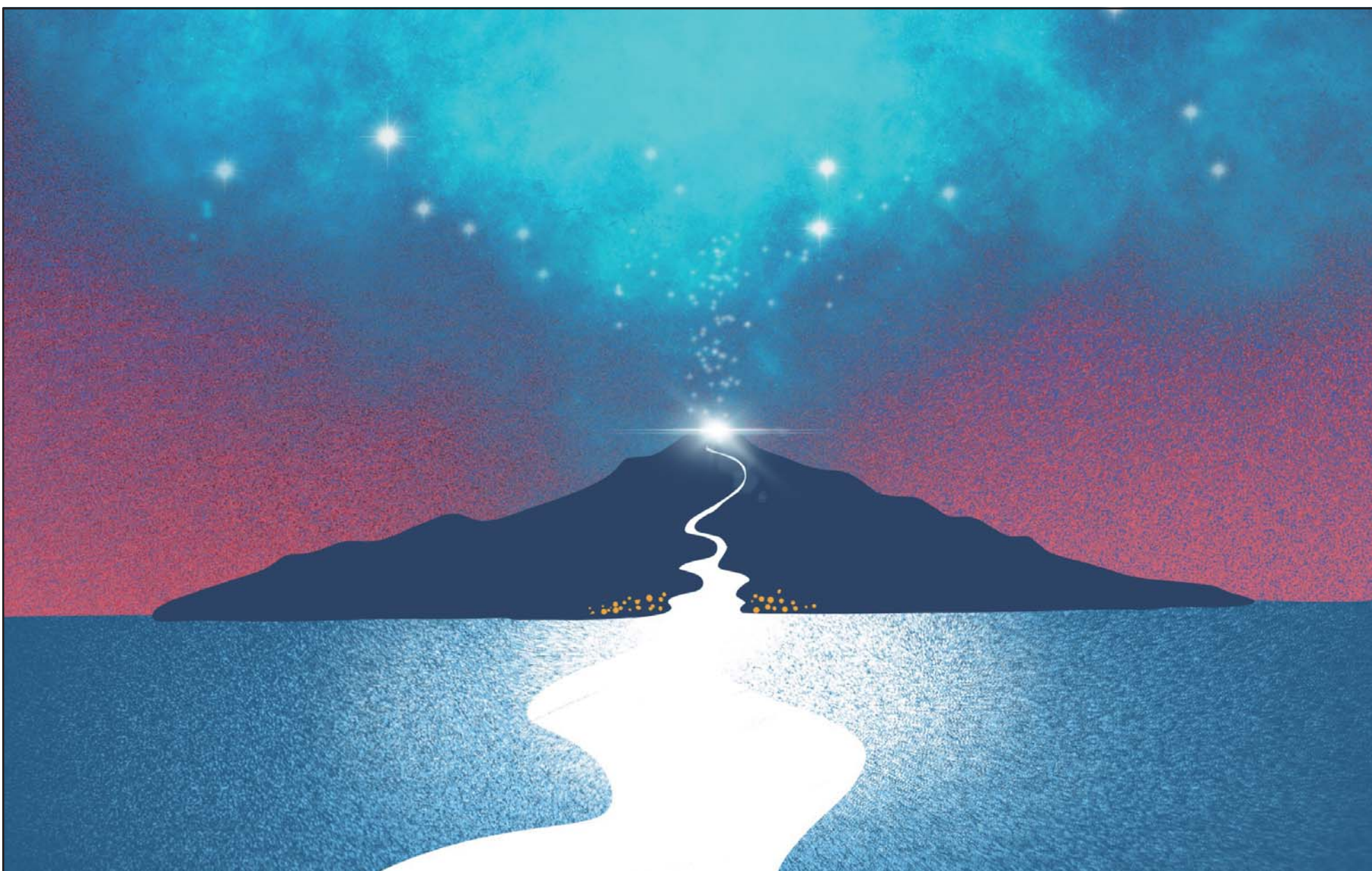
지역에서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9000만원을 투입해 3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과제당 최대 3000만원과 ICT 기반 모바일에 플리케이션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콘텐츠 소재에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고, 5G기술과 융합된 선도기술 및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등 제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오는 5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대모기자



서귀포시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서귀포시
 그래서 더 찬란합니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